

해남군 폭염 TF팀...군민안전 지킨다

야외 근로자·재난 취약계층 등 3대 취약 분야 보호 대책 마련 취약층 모자·선풍기·생수 지원

해남군이 여름철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 근로자, 농발 작업자, 재난 취약계층 등 주요 3대 취약 분야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군민 안전 최우선 목표로 선제 대응에 나섰다.

해남군은 폭염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다양한 폭염 대응 전략을 시행 중이다.

폭염 집중 대응 기간 운영과 지속적인 폭염 취약계층 모니터링을 통해 폭염 상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영농 육의 작업장 등 폭염 취약 지역 예찰활동과 현장 밀착형 응급 구급 체계를 구축했다.

또 폭염 대응 전 군민 행동 요령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난 문자, 스마트 마을방송,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폭염 피해 예방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해 모자 530개, 선풍기 76대, 생수 2만 3000개를 배부했으며 추가로 스마트그늘막 1개소를 신속히 설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그늘막 29개소, 무더위 쉼터 575개



해남군 관계자들이 도로 위 온도를 낮추기 위해 살수차를 동원해 물 뿌리기를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소, 쿨링포그 8개소 등 다양한 폭염 저감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남읍내에서는 살수차를 운영해 도심 열섬 현상도 완화할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폭염 대응 체계에 따라 안

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취약계층, 공공근로자, 어르신 일자리 등에 대한 예찰과 안전 확인, 행동요령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군 2030년까지 온실가스 70만t 감축

기후변화 대응 이행 로드맵 수립

완도군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완도군은 기후변화 가속화로 인한 재해위험이 커짐에 따라 지난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최근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바다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청정 도시, 완도'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70만9000t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분야별로 온실가스 배출 흡수 현황과 전망에 따른 감축 목표 수립,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이행 로드맵 수립 등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또 세부 계획으로 해상풍력, 태양광 확대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전환, 제로 에너지 건축물 확대,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스마트 농수산업 실현, 자원 순환, 탄소 흡수원 조성 등을 추진한다.

완도군은 이번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바다목장과 바다 숲 조성, 재난 예-경보 시스템 강화 등 3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군은 지난 2015년 전남에서 처음으로 기후변화대응팀을 신설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제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기후위기에 대응 단계로 넘어가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영광군이 다양하고 수준 있는 문화강좌 향유와 배움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 '2024년 하반기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개설 강좌로 여성을 위한 취업·창업 프로그램, 티블렌딩전문가(2급), 풍선아트지도사(1급), 동화심리상담사(3급) 과정과 취미·교양 프로그램, 당구, 이미용헤어(컷트), 시인학교, 풋살, 명리학&관상, 꽃꽂이, 화서사, 영상촬영 및 편집, 광고실라이프아트방만들기 2개 분야 12개 과정을 하반기에 운영한다.

모집 인원은 총 181명으로 1인 2과정 이내 과정보다 선착순으로 모집되며,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영광군 여성문화센터에서 선착순 방문 접수를 받는다.

교육 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과목별 수업시간 및 수업내용은 영광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문화센터 또는 영광군 가정행복과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영암군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선정

15억 확보...분산 에너지 기반 조성

영암군이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제2차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5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풍부한 재생에너지 분산자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최종적으로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형 VPP(통합발전소) 모델을 마련해 지역 내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

이다. 군은 대불국가산단과 HD현대삼호 등 RE100(재생에너지 100%) 기조에 맞춰 대규모 분산에너지 기반 마련이라는 과제를 갖고 있다.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분산에너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이 주도하는 플랫폼 모델로 구축하고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목포시 고령 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지원

목포시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선이탈 경보장치' 구입·설치비를 지원한다.

차선이탈경보장치는 차량 내부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전방 차선의 상태를 인식하고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이탈 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울려 사고를 예방하는 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이다.

목포시의 올해 사업량은 67대로, 생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행해야 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운전면허 반납이 어려운 고령 운전자에게 장비 구입·설치비용을 1대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목포시청 교통행정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무안군이 남악중앙공원 임시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하고 오는 18일까지 무료로 운영한다.

무안 남악중앙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무료 운영

무안군이 남악중앙공원에 임시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하고 오는 18일까지 무료로 운영한다. 어린이 물놀이장은 대형슬라이드 2개와 풀장 3

개를 갖춘 에어바운스 수영장으로 구성됐다. 몽골 텐트와 그늘막 등 편의시설도 갖췄다. 안전요원을 배치해 이용객 안전에도 나선다.

운영시간은 평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주말(공휴일 포함)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이용은 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다.

무안군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와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